

특집

□ 石油市場동향과 전망 □

제74차

OPEC총회

결과와 전망

- 産業研究院 -

OPEC (石油輸出国機構) 石油相들은 지난 7월 22일부터 4일간 제네바에서 개최된 第74次 OPEC 정기총회에서 사우디產 重質油(Arab Heavy Crude)와 中質油(Medium Crude) 公示價를 각각 배럴당 50센트, 20센트씩 인하하였다.

그러나, 만성적인 공급과잉으로 인해 現物油價가 公示價를 배럴당 1~2 달러 하회하고 있는 마당에 이 정도의 소폭인하로는 石油市場을 안정시키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기 베네수엘라는 이번 총회에서 결정된 인하폭 이상의 油價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현재 쿼터의 절반정도를 생산하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는 점차 쿼터인 하루 435만 배럴까지 생산을 증대시킬 것으로 보여 世界石油市場은 더욱 불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비록 4/4분기 이후에는 계절적으로 石油에 대한 수요가 다소 증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北海유전의 생산증대, 이라크의 送油管신설에 따르는 생산증대 등으로 수요를 상회하는 공급이 예상된다. 게다가 石油製品수출의 증대, 精製價值販賣(Net-back-linked sales)方式의 확산 등으로 油價인하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금년 말에는 油價가 배럴당 1~2 달러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OPEC이 이번 총회에서 사우디產 重質油價를 배럴당 26.5달러에서 26달러로, 中質油價를 27.4달러에서 27.2달러로 인하함에 따라 OPEC의 加重平均公示價는 배럴당 14센트 인하되었다. 加重平均公示價가 14센트 인하된 것은 OPEC의 油種중에서 약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輕質油가 격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또한 輕質油와 重質油의 價格隔差(Differentials)는 종전의 배럴당 1.5달러에서 2달러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油價인하조치는 개최전까지만 해도 종전의 油價體系를 고수하겠다는 회원국들의 입장에서는 일보 후퇴한 것이었다. 그것은 지난 7월 초에 流產된 OPEC회의에서 生産調整国(Swing Producer)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사우디 아라비아가 생산을 급격히 증대시킴으로써 油價폭락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重質油 생산비중이 높은 사우디는 重質油公示價가 시장시세보다 높게 책정되어 생산 및 수출이 격감함에 따라 重質油價의 인하를 강력히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과는 달리 油價인

하폭이 이처럼 소폭에 그친 것은 4/4분기 이후 난방용 석유수요의 증대와 더불어 석유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며, 價格隔差가 클 경우 輕質油價의 인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輕質油 생산국들의 반대에 힘입은 바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OPEC이 소폭이나마 油價를 인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세계석유시장의 만성적인 공급과잉현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4, 2/4분기 중 자유세계의 石油소비는 각각 하루 4,500만배럴, 4,440만배럴로 전년동기 대비 2.2%, 3.7%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2/4분기 중 自由世界の 産油國은 하루 40만배럴씩 늘어나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① 일부 OPEC 회원국들이 쿼터제한을 받지 않는 求償去來를 통해 석유공급을 증대시켜 왔다는 점, ② 석유소비가 1/4분기 보다 하루 평균 60만배럴이 감소한 지난 2/4 분기에도 非OPEC 産油國의 공급은 50만배럴이 늘어났다는 점 등으로 인해 석유의 공급과잉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왔다.

이에 따라 現物油價도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 4월 말경에는 거의 公示價수준(배럴당 28달러)으로까지 회복되었던 사우디産 輕質油의 現物價格은 7월 현재 배럴당 26달러 60센트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北海産 브렌트(Brent)유나 각종 重質油 등 거의 모든 油種의 現物價格이 公示價를 배럴당 1달러 정도 하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우기 7월 들어서 소련, 이집트, 멕시코 등 非OPEC 産油國이 自國産 原油의 수출가격을 인하한 것이 OPEC의 油價인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련은 우랄스(Urals)유의 7월 수출가격을 배럴당 26달러에서 25.5달러로 인하했으며, 이집트도 自國産 가리브(Garib)유와 벨라임(Belayim)유의 7월 引渡價格을 각각 배럴당 2달러, 1.25달러씩 인하하였다. 또한 멕시코는 重質油인 마야(Maya)유의 가격을 지역별로 배럴당 0.5~1.5달러 인하함으로써 사우디産 重質油價와의 격차를 배럴당 3~4달러로 확대시켰다. 더우기 이란이 5월 이후 적어도 4개의 西方石油會社에 精製價值판매를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배럴

당 4.15달러의 할인판매를 하는 등 회원국 내부로 부터의 油價인하압력도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OPEC은 石油市場안정을 위한 해결책으로 油價인하와 함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제시되었던 생산한도축소 및 쿼터配分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총회에서 타결을 보지 못하고 10월 3일 임시총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생산한도의 축소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초 OPEC회의에서 계절적인 수요변동을 감안하여 變動限度制(Floating ceiling)를 채택하자는 案이 제출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이란은 이번 총회에 앞서 각국별로 自國쿼터를 7%씩 감축함으로써 현재 하루 1,600만배럴인 OPEC 전체의 생산한도를 1,488만배럴로 감축하자고 제안했으며, U. A. E.와 알제리도 시장안정대책으로 유가인하보다는 생산한도축소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라크가 送油管 신설에 따른 생산증대를, 에콰도르, 가봉, 카타르가 국내 경제여건의 악화를 이유로 自國쿼터의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생산한도와 쿼터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그런데, 현재 OPEC에 대한 석유수요가 생산한도를 하회할 뿐 아니라, 금년 3/4분기 이후에도 석유수요가 크게 증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現生産限度를 지속할 경우 油價인하압력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가을 임시총회에서는 생산한도가 감축될 가능성도 있다.

OPEC 관계자들은 현재 西方의 在庫油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石油市場은 어느 정도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았으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시장안정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첫째, 油價인하가 소폭에 그쳤으며, 생산한도도 감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록 重質油價가 배럴당 50센트 인하되었지만, 現物油價와 비교하면 여전히 배럴당 1~2달러 높은 실정이다.

둘째, 세계석유시장에서 비중이 높은 輕質油의 公示價도 現物油價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도 이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그것은 지난 2월 총회에서 重質油價를 인상함에 따라 석유판매가 급격히 감소한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重質油생산국들이 輕質油價인하를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웨스트 나이지리아

石油相은 총회가 끝난 후에도 輕質油생산국들은 여전히 油價인하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세계, 지난 2월 총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油價인하결정도 이란, 알제리, 리비아가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로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들 국가들이 OPEC결정과 무관하게 石油판매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째, 이번 총회에서 價格隔差調整委員會(Differentials committee)의 常設화와 함께 다시 한번 회원국들의 협정준수를 촉구하였으나, 협정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확립되지 못함으로써 일부 회원국이 기존에 실시하던 할인판매, 求償去來 및 精製價值판매 등이 중단될 것 같지는 않다.

실제로 油價의 대폭인하를 기대하면서 재고비축을 중단하였던 精油業者들이 다시 在庫備蓄을 증대함에 따라 총회기간 동안 現物油價가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총회가 끝난 다음날부터 단기적인 재고비축이 끝남에 따라 現物油價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것도 OPEC 총회결과가 시장안정에 미흡하다는 것을 反證하고 있다.

〈表-1〉 展望機關別 OPEC 平均公示價 추이 및 전망

(單位: \$ / B)

	1983	1984	1985	1986
DRI	29.56	28.58	27.77	26.75
WEFA	29.83	29.09	27.80	27.63
NIESR	30.06	29.16	28.28	27.70

〈資料〉 DRI, European Review, July 1985.

WEFA, World Economic Outlook, May 1985.

NIESR, National Institute Economic Review, May 1985.

이번 총회 결과가 시장안정은 물론 개별회원국의 국내경제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사우디 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등 일부 회원국들은 이번에 결정된 인하폭 이상의 油價인하와 생산증대 및 할인판매 등을 감행할 움

직임을 보이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지난 5월 이후 非OPEC 產油국이지만,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서 석유판매에 경쟁적인 멕시코가 마야油價를 배럴당 평균 2.27달러 인하하자 자기들도 이번 총회결과와 관계없이 自國產 重質油價를 배럴당 2달러 인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 總石油수출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重質油의 加重平均價格은 배럴당 25.5달러로서 마야油價보다 배럴당 2달러 높은 수준이어서 베네수엘라는 심각한 販路위축과 收入감소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의 행정부 일각에서는 멕시코보다 수송비가 비싼 점을 감안하여 마야油價보다 배럴당 50센트 낮은 수준까지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수일내에 重質油價를 배럴당 2달러 정도 인하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生産調整국으로서의 역할 때문에 2/4 분기의 하루 평균생산량이 263만 배럴에 머물고 있는 사우디는 엄청난 재정적자를 補填하기 위해 지난 7월 초에 生産調整국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自國쿼터인 하루 435만 배럴까지 생산을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사우디 아라비아는 비록 현재의 油價약세를 감안하여 급격히 증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을까지는 쿼터를 모두 생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우디 아라비아는 앞으로 증산될 석유를 船上備蓄在庫(Floating stockpile)의 증대와 오랜 동반자인 엑슨(Exxon), 모빌(Mobil) 등 주요 메이저를 통한 판매증대로 처리할 구상으로 있지만, 현재의 가격으로는 그 많은 석유를 판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밀리에 할인판매를 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에콰도르도 이번 OPEC 총회가 끝나자마자 現物油價 시세에 따라 自國產 오리엔트(Oriente) 油의 판매가격을 배럴당 1.2~1.7달러 인하하는 등 회원국 내에서부터 OPEC의 결속을 침해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처럼 이번 총회결과가 시장안정에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OPEC 회원국들이 油價인하 및 생산증대를 감행하려 함에 따라 금년 말까지는 油價가 다시 배럴당 1~2달러 정도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表-2〉 IEA의 石油需給¹⁾ 추이 및 전망

(單位: 億만B/D)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4	2/4	3/4	4/4	計	1/4	2/4	3/4	4/4	計	1/4	計	
消 費																		
O E C D																		
北 美	20.6	19.1	18.1	17.2	17.0	17.9	17.3	17.5	17.3	17.5	17.2	17.0	17.4	17.4	17.3	17.5	17.5	
유 럽	14.4	13.4	12.5	12.1	11.8	12.4	11.4	11.3	12.0	11.8	12.7	10.9	10.9	11.8	11.6	12.2	11.6	
태 평 양	6.6	6.2	5.9	5.3	5.1	6.0	4.8	4.9	5.3	5.3	5.7	4.5	4.9	5.4	5.1	5.8	5.2	
小 計	41.6	38.7	36.5	34.6	33.9	36.3	33.5	33.7	34.6	34.6	35.6	32.4	33.2	34.6	34.0	35.5	34.3	
非 O E C D	10.8	11.0	11.2	11.4	11.3	11.4	11.4	11.5	11.5	11.5	11.6	11.6	11.6	11.7	11.6	11.7	11.7	
總 消 費	52.4	49.7	47.7	46.0	45.2	47.7	44.9	45.2	46.1	46.1	47.2	44.0	44.8	46.3	45.6	47.2	46.0	
供 給																		
O E C D	14.7	14.8	15.0	15.5	16.0	16.5	16.4	16.6	17.0	16.6	17.2	16.9	17.2	17.3	17.2	17.3	17.2	
開 途 國	5.3	5.8	6.4	7.2	7.5	7.9	8.0	8.1	8.1	8.0	8.3	8.5	8.6	8.6	8.5	8.6	8.7	
共 産 圈 純 輸 出	1.1	1.2	1.1	1.4	1.7	1.5	1.9	2.1	1.9	1.8	1.0	1.6	1.8	1.8	1.6	1.3	1.6	
加 工 利 得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總 非 O P E C	22.1	22.8	23.5	25.1	26.2	26.9	27.3	27.8	28.0	27.4	27.5	28.0	28.6	28.7	28.3	28.2	28.5	
OPEC 原油 生産	30.7	26.6	22.4	18.6	17.2	17.8	17.5	16.7	16.7	17.2	16.2	15.1						
O P E C 液 化 天 然 氣 生 産	0.9	1.0	1.1	1.2	1.2	1.3	1.3	1.3	1.3	1.3	1.3	1.3						
總 O P E C	31.6	27.6	23.5	19.8	18.4	19.1	18.8	18.0	18.0	18.5	17.5	16.4						
總 供 給	53.7	50.4	47.0	44.9	44.6	46.0	46.1	45.8	46.0	45.9	45.0	44.4						

註: 1) 共産圈 제외. OECD 성장률을 85년 하반기 3.25%, 86년 2.75%로 가정.

〈資料〉 IEA, Oil Market Report, July 1985.

비록 OPEC 관계자들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西方 石油會社들의 재고비축수요가 다시 늘어나고, 금년 4/4분기 이후 暖房油수요가 증대되어 油價가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향후 공급증대폭이 수요증대폭을 상회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즉, 夏節期를 맞아 다소 감소하였던 北海油田의 생산이 가을부터는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라크가 오는 9월에 紅海연안에 이르는 신규 파이프라인을 완공함에 따라 10월부터는 하루 50만 배럴을 추가로 수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아울러 OPEC 국가들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건설해온 대규모 정유공장들이 최근에 본격 가동됨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 石油製品의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이란에 이어 카타르,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심지어는 사우디 아

라비아까지 精製價值販賣方式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油價인하압력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현재 公示價보다 배럴당 약 1 달러 정도 낮은 現物油價가 연말까지는 1~2 달러 정도 더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는 금년 하반기에 油價가 배럴당 25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향후 1~2년 동안 세계경제가 크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OPEC를 비롯한 생산국들이 생산을 억제하고 가격할인행위 등을 방지하지 않을 경우 油價는 배럴당 20달러 수준으로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정보 85. 7. 30일자〉